

확대형 두발양식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의 비교분석 -

임 린* ·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nlargement Hair Type

- Compare the Enlarged Hair Type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at in Rococo -

Lynn Yim* · Eun-Jung Kim⁺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2. 6 투고)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enlargement phenomenon in hair style as one of Costume types and analyzes its artist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Hair style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at of the Rococo.

First, its formative property, one of the common aesthetic characteristics, breaks the concept of traditional balance in Clothing and emphasizes its transformation, changes, and space beauty. This formative property shows the Enlargement and exaggeration beyond the concept of Space. Its sensuous property reflects women's psychological minds; exaggeration and sensualism. Artistic property doesn't focus on hair style only or clothing style only and considers hair style as center of beauty as well as its important element. It shows the traditional beauty of nature and creativity in the Chosun Dynasty.

Second, its formative property, one of the differential aesthetic characteristics, shows these following differences consider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at of the Rococo; mutual transformation, independent transformation, focus on distortion, harmony in scale, disharmony between irregularity and exception, extension and separation in space, etc. Sensuous property shows the temperate beauty and metaphorical sense, affected by the Practical Science, in the late Chosun Dynasty while it shows the secular sense and exaggerated beauty, affected by the Enlightenment, in the Rococo. Artistic property shows the harmony with the Clothing style, balanced wearing lines, and natural beauty, as one part of Clothing, in the late Chosun Dynasty. However it shows creativity, as separate part from Clothing, in the Rococo.

Key words: enlarged hair style(확대형 두발양식), enlargement(확대현상), formative property(조형성), sensuous property(심미성), artistic property(예술성)

I. 서론

두발양식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복식문화의 한 측면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형태의 변형과 조형의 파격으로 일컬어지는 두발양식에서의 확대현상은 기존의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면서 확대형 두발양식이라는 변형된 미적형식을 완성시켰다.

두발양식에 나타난 확대현상은 복식표현의 한 방법으로 두발이 갖고 있는 양감(量感)을 과하게 강조하여 내적인 심리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 자체의 미적가치를 발산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보이는 형태의 확장은 인간의 표현성 욕구에 따라 인체 고유의 형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형태감의 특별한 강조현상으로, 외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내재적 정신과 감정의 발현체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이는 확대형 두발양식이 단순한 복식요소가 아닌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시대양식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연구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적으로 확대형 두발양식은 당시대의 복식, 예술, 건축,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확대와 과장이라는 조형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당대의 미적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복식의 확대현상에 대한 양적, 질적성과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발양식의 확대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두발양식은 복식의 한 부분으로써 시대적 변천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복식과 두발양식의 확대현상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이에 복식의 확대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확대형 두발양식에 관한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오현정, 이은영¹⁾, 이순홍, 김정신²⁾, 진성모³⁾ 등은 복식에 나타난 확대현상을 조형과 변형의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성광숙⁴⁾은 복식에서의 확대현상에 관한 미적가치를 밝힘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를 세웠다. 또한 김경은⁵⁾, 김미진⁶⁾, 김미현⁷⁾, 이수진⁸⁾ 등은 복식에서의 확대와 과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물을 제작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대형 두발양식이 갖는 미적특성을 고찰하고자, 확대형 두발양식이 성행하고 정착되었던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두발양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18세기를 전후한 동일한 시대에 다른 공간적 배경을 두고 동일한 성격의 두발양식이 유행하였다는 점과 정치상황, 경제부흥, 실학과 계몽주의라는 시대사조의 대두 등 유사한 시대적 상황이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과 서양의 확대형 두발양식에 내재된 보편적, 차별적 미적특성을 동일선상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의 확대형 두발양식이 내포하고 있는 미적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두발양식에 나타난 확대의 의미

1. 조형적 변화

확대는 사전적 의미로 늘려 크게함⁹⁾을 의미한다. 이는 양적인 팽창을 뜻하는 것으로 공간을 크게 확보하는 과장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경은¹⁰⁾은 확대와 과장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였고, 이 모두 인체의 변형이며 왜곡으로 보았다. 즉, 변형되어진 인체는 예술적인 감각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재창조로 이어지며 복식요소로써 응용, 재구성, 해체 등 인체표현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양식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복식을 비롯한 두발양식에서 나타나는 확대현상은 양(量)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즉, 인체가 차지하는 개별적 공간내에서 양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표현방법으로, 자신의 공간적 양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복식요소에서 공간의 양감확보는 전

통복식에서 착용자의 신분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의 공간은 그 자체가 강한 인상을 주어 넓은 공간은 의례적이고 위엄있는 시각적 효과를 주게 된다. 이는 전통복식에서 확대형 두발양식을 의례복식과 함께 착용하였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발양식에서의 확대는 시각적으로 인지되어지는 형태적 양감을 통해 새로운 양식과 조형을 완성하고 미적효과를 발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심리적 표현

두발양식에서의 확대는 그 방향성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심리적인 측면과 연관성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김영자¹²⁾는 수직적 확대, 수평적 확대, 원형적 확대, 부분적 확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수직적 확대란 인간의 신장과 관련된 확대심리로 길이 방향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에 내재된 심리적 특성은 위엄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우러러 보이는 대상에 대한 존중의 심리적 감정이 발휘되기 때문에 숭고미라는 미적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발양식의 수직적 확대는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강하게 적용되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반면, 수평적 확대는 인체의 앞, 뒤, 좌, 우쪽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신장에 대한 대비적인 성격이며 양감을 느끼게 하면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수직적 확대에 의해 충족될 수 없었던 부피감을 보충하면서 부의 과시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두발양식에서도 수직적 확대와 함께 인간의 과시적인 심리를 효과적으로 발산시켰던 확대방법이다. 즉, 두발양식에서 확대의 방향성은 두발이 신체의 최상에 위치하는 복식요소인 관계로, 수직적 확대에 의한 권위의 상징과 수평적 확대에 의한 과시욕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만큼 확대형 두발양식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아울러 확대된 방향에 따라 확보된 공간은 인간의 내재적 감정이 이입되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두발이 연장된 느낌을 갖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두발이 확대된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서 확대가 단순

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미적특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3. 예술적 공간

두발양식에서의 확대는 새로운 양식의 창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복식에 대하여 실용적인 것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면서¹³⁾ 두발양식에 나타난 확대현상은 인간의 표현본능에 의해 독창적인 양식을 탄생시켰고 또다른 형식으로서의 표현을 유도했다. 즉, 예술이 새로운 미적내용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미적형식에 반영하고, 미적반응을 통해 미적특성으로 수용되어지는 과정을 겪어 예술성을 갖는 것처럼, 확대형 두발양식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었던 두발양식에서의 보편적 형식을 변형하고, 창조적인 양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미적형식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술성을 갖는 하나의 양식은 독립된 개체가 아닌 살아있는 형식으로써 유기적(有機的)이어야만 하며, 유기체로써 끊임없는 연소(燃燒)와 형식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각에서도¹⁴⁾ 확대형 두발양식은 당시대의 감성과 시대상에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변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발양식에서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복식을 보조하거나 장식하는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두발양식이 시대복식을 대표할 정도의 특징적인 미적성향을 갖고, 개인의 감정과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적 창조공간으로 인식되어지는 인지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 인체와 복식의 시각적 상호관계에서 들롱(Delong)¹⁵⁾이 말한 복식우선형 복식과 같은 맥락에서 두발양식은 더 이상 인체의 연속선상만이 아닌 개별공간으로써 본래의 형태를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미적특성을 통해 예술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의 전개

1.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이 가장 성행한 시기는

영·정조(1724~1300)대로, 이 시기는 절대군주제에 의한 사회체제가 농업생산력 증대와 경제구조 변동에 따른 신분구조의 변화를 보이는 때이다.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상민, 천민의 신분 상승이 등과 양반계층의 수조권 상실에 따른 신분 하강이동이 겹쳐지면서 종래의 신분적 관계가 약화되어 실생활에서는 경제적 관계가 더욱 중시된 시기이기도 하다.¹⁶⁾ 이러한 정치상황과 경제적 부흥은 두발양식이 갖고 있는 의례적,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미적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모든 계층에서 확대형 두발양식이 유행하면서 어떠한 복식요소보다 계층을 넘나드는 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英祖實錄』¹⁷⁾에서 '우리나라 궁중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 궁중에서 고계(高髻)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곧 일반 백성들이 고계를 좋아한 것이다...지나날 명부들이 입궐시에는 궁양(宮樣)을 따랐으나, 금일에는 모두 가계를 올리는 것이 더욱 극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유행이 거의 정체되는 일반적 현상과 상반되게 계층간 동조현상을 보인다.¹⁸⁾

이렇듯 확대형 두발양식이 크게 성행하였던 데에는 당시에 대두되었던 실학에 내포된 사상적 특징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대두되었던 실학은 조선시대 전반에서 보여진 성리학의 인, 의, 예, 지에 의한 도덕적 인간관¹⁹⁾을 부인하고 주체적 인간관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인간 개체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해냄으로써 개인이 지니는 욕망을 긍정하여 인간의 본질을 도덕적 지향에 국한시키려 하지 않고 적극적인 문화창조의 역동적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상통한다.²⁰⁾ 또한 유형원을 비롯한 이증환, 유수원, 정약용 등 많은 실학자들이 사민의 구분은 귀속적 요소보다 성취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민평등관²¹⁾은 확대형 두발양식을 통해 상류계층을 모방하고자 했던 심리적 측면과 부합하면서 사상적 근거가 되었고, 여자복식에서 제한되었던 표현욕구가 확대형 두발양식을 통해 발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실학에서 엿볼 수 있는 조선후기의 시대

사조는 예술사조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이룬다. 특히 회화에서는 조선풍과 개성적 독창성을 가능하게 한 사실주의가 크게 부각되었다. 즉 회화에서 사실묘사력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유교적인 장식적 실용화나 기록화, 종교화에서 벗어나 진경산수화나 풍속화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기이다.²²⁾ 이에 당시의 복식구조는 여성의 미적추구의 본능과 욕구를 과감히 드러내는 파격적인 상박하후의 형태를 보인다. 특히 좁고 짧은 저고리의 착용을 김영자²³⁾는 체형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는데, 이는 격식에 가리웠던 체위의 미적 발견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상의를 꼭 끼게 입는 반면 허리 아래로 여러 가지 속옷을 받쳐 입고 부풀려 극적인 대비의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후기 복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부여하였던 한국복식에서의 미적가치인 선의 미[선의 미(금기숙, 1988), 형태미(임영자, 유순례, 2000), 자연의 미(윤보연, 2001)], 절제미[유교적 예의관(김영자, 1987), 인격미(금기숙, 1988), 의례적 미(최세완, 1992), 유교적 금욕성(김윤희, 1998), 정신미(임영자, 유순례, 2000)], 은유적 관능미[은유적 관능성(김윤희, 1998), 은폐의 미(최선은, 2001)]의 특징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는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 및 사회적 갈등,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여성의 표현욕구 제한과 이에 대한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복식의 하단부가 확대되는 구조변화와 함께 확대형 두발양식은 매우 성행하였다. 『朝鮮王朝實錄』²⁴⁾에 성중(城中)의 고계(高髻)가 1척(尺)으로 높았다는 기록이나,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대에 걸쳐 내려졌던 가계금지령(加髻禁止令)에서 당시 확대형 두발양식이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두발양식으로 좌우 대칭구조를 이루었던 대수(大首)는 궁중에서 착용되었던 최고의 확대형 두발양식인데 중국 명(明)에서 사여된 왕비의 관(冠)을 대신하여 착용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형태는 체를 이용하여 긴머리를 어깨까지 말아올린 후 양끝에 봉잠(鳳簪)을 꽂아 삼각형을 이루고, 뒷머리 가운데 두발을 두 갈래로 뿜아 머리의 앞부분에 떨림과 봉잠을 장식한 양식²⁵⁾으로 두발을 고르게 퍼

비녀로 말아 올리는 양상이 좌우로 활짝 퍼져 양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비녀로 말아 올려진 두발의 끝마무리는 한국복식의 섹코, 비선코, 당코를 비롯하여 기와의 처마끝을 연상시키는 한국적인 선의 미²⁶⁾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확대형 두발양식에서의 미적특성을 보여준다. 이때에 사용된 체의 양은 『嘉禮都監儀軌』²⁷⁾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비(妃)의 대수에 소요되는 체가 최고 68단(丹) 5개(介)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조선말기 10단으로 줄어든 것에 비하면 상당한 체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피면에서 굉장히 확대된 대수가 착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거두미(巨頭美·擧頭美)는 큰머리라고도 하는데, 앞 가리마 위에 칩지를 매고 그 위에 어염족두리를 올려놓으며, 체를 일곱쪽지로 땀아 엮고 양끝을 등글게 구부려 만든 환계(環髻)를 덧붙여 올린 형태이다. 이러한 거두미는 환계에 의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환계의 형상이 나비의 날개를 떠올리게 하며 수직방향으로의 확대효과와 좌우로의 양감확대가 병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대수가 곱게 쓸어내린 체로 공간을 채워 위엄과 권위를 무게감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환계에 의해 두상에서의 여백을 남겨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부피감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조형에서의 완성미를 보인다. 이러한 환계는 과도한 체의 사용으로 그 무게를 지탱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목제인 일명 떠구지로 대체하게 되는데,²⁸⁾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목제의 사용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도입을 보였다.

어유미(於由味·於汝美)는 어염족두리를 쓰고 체를 머리에 등글게 두르는 형태로 외명부가 착용하였던 확대형 두발양식이다. 민가의 혼례에 허용되었던 양식이며, 궁중에서 착용되었던 두발양식 중 민가의 두발 확대현상에 가장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유미에 쓰였던 체의 양에 관한 규정이나 제약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가체금지령에서도 언급이 없다. 단지 『正祖實錄』²⁹⁾에서 단계(單髻)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한참 성행하던 시기에는 땀아 체를 여러번 감아 올려 매우 큰 형태였던 것이 체의 양을 줄여 간소한 형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³⁰⁾

이렇듯 궁중에서 착용된 확대형 두발양식은 좌우대칭의 안정된 구도 속에서 환계를 비롯한 기타 장신구를 활용한 형태로 정형화 되어있다. 그러나 풍속화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민가의 없은머리는 체를 사용하는 양이나 머리에 없는 양태가 각기 달라 매우 다양하고 파격적이며 율동적이기도 하다. 구름같은 머리(雲髻)로 표현될 정도로 매우 확대되었던 없은머리는 비대칭형으로 땀아 올려 복식에서의 자유분방함과 세속적인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기에도 충분하였다. 특히 검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閨閣叢書』³¹⁾에서는 체를 염색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전수하였는데, 체를 이용하여 본인의 두발과 합쳐 땀아 두상에 여러번 감아 올려 땀아고정하였던 이러한 양식은 반가 부녀자를 비롯해서 일반 부녀자 및 기녀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매우 성행하였다. 특히 체의 양과 두상에 없는 형태가 신분과 개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고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없은머리의 확대양상에 관해서는 『靑莊館全書』³²⁾에서 '요즘 어느 한 부잣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체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는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일어서다가 체에 눌러서 목뼈가 부러졌다.' 라고 하였으며, 『英祖實錄』³³⁾에서는 '사대부집의 사치가 날로 심하여 부인이 가체(加髻)하는데 누백금(累百金)을 소비해가면서 서로 본받기를 힘쓰고 되도록 높고 크게 만들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두발의 높이는 1척(尺)을 웃돌아 확대된 두발의 직경만 약 30cm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했음을 알 수 있다.³⁴⁾

2.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

서양의 로코코시대는 루이 15세와 16세(1715~1792)를 정점으로 우아하고 섬세하며 사치스러운 귀족취향을 보였고, 전시대에 비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경향이 복식문화 전반에서 보여졌다.³⁵⁾ 18세기를 대표하는 시대양식이 된 로코코는 본래 당시 귀족사회의 생활을 미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식양식 또는 공예품에 대해 쓰인 말이었

으나, 나중에는 프랑스미술 나아가서는 유럽미술 전반에 걸친 양식기념이 되었다.³⁶⁾ 복식에서도 이러한 로코코양식은 그대로 유입되어 자유롭고 감각적이며 디테일한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다.

이렇듯 호화로운 로코코양식이 정착된 데에는 당시의 경제구조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시기는 소수 농민에 의해 다량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농업혁명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농업혁명의 결과로 생긴 유희노동력으로 산업혁명의 시초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직물공업을 위주인 산업혁명은 복식발달을 가속화 시켰고, 전세기부터 추진되어오던 중상주의 정책이 해외무역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성장과 대외무역의 안정을 이루어 생활양식 전반의 변모를 가져오면서 복식문화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다. 또한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해 잡지가 대량 출판됨으로써 17세기의 사람 크기 인형에 의해 패션이 전달되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보였다.³⁷⁾ 이러한 경제적 변동은 경직되었던 사회계급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종래의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었으며, 부유계층들이 전통적 귀족들을 밀어내고 오히려 귀족행세를 하게 되었다.³⁸⁾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구조와 신분구조의 동요는 계몽주의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몽테스키유(Montesquieu), 볼테르(Voltaire), 루소(Rousseau) 등이 활동하였던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존중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 이성의 힘이 인생을 충실시킨다는 신념 나아가 자유, 향락적인 인간감정의 존중에 기쁨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성의 힘이 실제 생활의 실천과 결부되는 데에 또 하나의 특질을 이루고 있어 실천적 휴머니즘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지금까지 종속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미비하나마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여성, 여성의 본성과 운명, 또 여성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여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기도 하였다.⁴⁰⁾ 이에 로코코시대의 복식은 여성의 실리주의적 쾌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련미, 유희미, 관능미를 섭렵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즉, 슈미즈(Chemise), 콜셋(Corset), 빠니에(Panier)에 의해 상체는 꼭끼고 하체는 부풀은 형태의 인체로 왜곡하고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본성에 충실한 에로티즘을 나타내었으며, 그 위에 화려한 로브를 입음으로써 풍요로운 멋과 예술작품과 같은 복식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거대한 스커트에 확대된 두발양식을 미적으로 완성된 비율로 인식하고 조화시켜⁴¹⁾ 확대형 두발양식이 성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로코코시대의 확대형 두발양식은 바로크시대에 성행했던 뿔따주(fontange)형이나 마담 폰파두르(madame de Pompadour)의 영향을 받은 폰파두르형의 낮은 두발양식이 사라지면서 화려하고 예술적이며, 환상적인 양식으로 발달의 극치를 이루었다. 특히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뜨(Marie Antoinette)는 당시 확대형 두발양식의 리더로서 여성들은 왕비의 두발양식을 따라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다. 즉, 로코코시대의 두발양식은 1760년대가 되면서 지나치게 거대한 두발양식이 심각할 정도로 유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확대형 두발양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캡 위그(cap wig)를 포함한 말털 쿠션, 철사받침 등이 활용되었고, 나무판, 인형, 태양, 달, 별 등 특정사물을 묘사하고, 심지어는 실물의 과일까지 이용하여 머리에 장식하였다. 또한 돛단배나 마차, 병사 등의 실제 전시상황이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장식품도 이용되어 확대형 두발양식은 하나의 예술품으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두발양식은 여성들 자신의 몸보다 더 커지는 기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두발을 다듬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확대형 두발양식은 매일 먼지를 털고 기름을 발라 손질을 한다고 해도 2주에 한 번, 보통은 한 달 동안이나 빗질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 불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에 이가 생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없애는 약의 광고가 그 당시의 잡지 광고란에 많이 보였다. 또한 그라투아르(Grastoir)라 하는 끝이 뾰족하고 가는 막대기로 상아, 금, 은, 다이아

<표 1>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의 전개

		조선후기	로코코시대
시대적 배경	정치상황	절대군주제-영조·정조대(1724~1800)	절대군주제-루이15·16세(1715~1792)
	경제부흥	양반이후 농업생산력 발달 등에 의한 상민계층의 부축적 및 신분상승이등	산업혁명과 중상주의에 의한 부유계층의 등장
	시대사상	실학사상-개인이 지니는 욕망을 긍정하며 주체적 인간관을 강조	계몽주의-종교와 관습, 제도에서 인간의 감성, 심성을 해방시키고자 함
	예술사조	사실적, 현실적, 자연적, 서민적	장식적, 귀족적, 반자연적, 인공적
	복식미	선의미, 절제미, 은유적 관능미	세련미, 유희미, 관능미
확대형 두발양식의 전개	복식구조	상박하후 구조 저고리-길이와 품이 작아지면서 가슴이 노출되고 소매가 좁은 직배래로 변화 치마-다양한 속옷의 발달로 과도하게 부풀진 향아리 형태	상박하후 구조 속옷의 발달-슈미즈, 콜셋으로 상체는 꼭끼고 하체는 부풀림 로브-빠니에와 페티코트에 의한 좌우와 양옆이 넓게 퍼지는 스커트 확대
	구성	타인의 두발을 이용하여 확대한 양식체를 겹고 윤기나게 하기 위해 염색함	캡 위그, 말털쿠션, 철사바침, 인조모발 등에 의한 확대형 양식 파우더를 사용하여 향기나고 윤기나게 함
확대형 두발양식의 전개	변화양상	기녀를 비롯한 반가의 스타일이 왕실에 영향을 미침 가계금지령-강압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층에서 확대형 두발양식의 성행	왕실과 상류계층에서 주도 마리 앙투아네뜨-확대형 두발양식의 리더 엘리자베스 여왕-80여개의 가발을 소유하고 착용하였음
	형태		

몬드를 박은 것을 머리의 밑에 집어 넣어서 두피를 굽기도 하였다.⁴²⁾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위에 가발을 쓰는 방법을 찾았다. 특히 가발은 그 치수와 비용에 따라서 쓰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였다. 가발에 의해 과장된 머리장식이 여성의 성적상징 및 매력의

수단이 되었으며, 수직방향으로의 신체를 확대시켜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⁴³⁾ 이는 가발의 발달을 이끌었고,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은 80여개의 가발을 가졌다고 한다.⁴⁴⁾ 메리 스튜어트(Mary Stewart)는 프랑스에서 가져 온 가발을 썼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틀에 한 번씩 가발을 바꿔 썼다고 하며, 교수형을 당할 때에도 가발을 쓰

고 있었다고 한다. 로코코시대의 영국인들은 빨간색 머리의 여왕을 5.방해서 붉거나, 적갈색의 머리를 한 여인들이 많았고, 금발 머리에 다양한 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유행했다. 파팅게일(Farthingale)의 넓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발에서의 여분과 높이를 독특한 머리형태와 보석으로 장식된 장식품들로 보충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색의 가발도 사용되었다. 베니스(Venice)에서는 포마이드 액으로 인조 모발을 붙였으며, 머리에는 파우더를 사용하여 향기가 나고 반짝거리게 했다. 가발의 재료는 사람의 머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숫말이나 암말털 같은 동물의 털을 사용하기도 했다.

가발에는 파우더를 사용하여 루이 16세 때에 가장 발달하였는데, 파우더는 살롱에서의 에티켓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갖가지 색의 파우더를 과도하게 뿌렸다.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흰색이었으며, 로코코 시대의 방종함과 절도 없음은 이같은 파우더의 사용량에도 잘 나타나서 마침내는 한해에 200만 파운드의 밀가루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다.⁴⁵⁾

이러한 확대형 두발양식은 과도한 형태적 확대를 보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풍자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1767년의 오스본(Osborne) 백작 부인의 서한에 의하면, '지금 거리에서 화제인 스트라스모아(Strassmore) 부인의 머리는 우모로 장식했다기 보다 우모를 썼다고 하는 쪽이 좋을 정도로 그 높이는 30cm나 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지 콜맨(George Callman) 2세 기록에 의하면 '여성의 머리를 건축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그 중심은 머리 위에 있는 쿠션이다. 앞머리를 뿌리로부터 꼭맞게 올려 이 쿠션을 덮고 쉼은 층을 이루어 건축의 날개를 모양짓고, 쪽은 뒤로 늘려 후두부를 지키는 방벽과 같다. 건물 전체는 검은 더블핀으로 견고하게 했으므로, 비에 젖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⁶⁾ 즉,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머리가 너무 높아서 마차에 탈 수조차 없었던 당시의 여성들은 머리를 마차의 창문사이로 내놓거나 무릎사이에 끼웠으며, 몸을 움츠리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 마차에 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확대형 두발양식을 창조하고 애용하였다.

IV. 확대형 두발양식의 미적특성

1. 보편적 미적특성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에 나타난 확대형 두발양식은 공간적 격차에 따른 역사와 문화, 시대사조, 자연환경 등 현격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조형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보편적 미적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확대형 두발양식이 시각적으로 새로운 조형을 시도함에 따라 비례개념이 재인식되어지는 복식사적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과 이러한 조형에서의 변화가 단순한 외적변형이 아닌 당시대의 정서와 미의식을 내포하였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확대형 두발양식이 의례와 사회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성을 표출하였다는 해석에 의한 것이다.

1) 조형성

형태, 색채, 소재의 구체적인 양식과 비례, 균형, 리듬, 통일의 조형원리가 조화를 이루어 결정되는 조형성⁴⁷⁾은 조선시대나 로코코시대 복식조형에서도 전통적인 비례개념이 익숙하게 적용되고 고정화되어 왔다. 그러나 복식조형의 한 요소인 두발양식에서 보이는 확대현상은 인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의해서 전통적인 조형성을 해체하고 비율을 파괴함으로써 변형을 이루었고, 변화를 강조한 조형성은 다시 과도한 변형을 야기하면서 실제와 아주 다르거나 손상된 상태인 왜곡을 이끌게 된다. 특히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보이는 왜곡은 전통적인 조형의 개념을 변형시키는 단계를 넘어선 과도한 확대와 과장에 의한 것으로 인체의 범주를 벗어난 공간확보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확대현상에서의 변형과 왜곡, 공간확보에 의한 조형성은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특징적으로 잘 나타난다.

조선후기의 확대형 두발양식은 두발의 형태가 과도하게 부풀면서 이전시대의 인체와 복식에서 이루었던 비율을 파괴하고 두상보다 확대된 두발양식에서의 변형을 보인다. 이러한 변형은 본인의 두발 뿐

만 아니라 타인의 두발인 체를 소재로 하여 두발양식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이전시대에 있어왔던 전통적인 두발양식의 비율표현을 높여 리듬에 의한 울동성과 왜곡률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조선후기 풍속화 중 체를 엮어 두발을 확대하였던 미인도에서는 두상과 인체의 비율이 4등신을 이루어 전통적인 두발양식에서 보였던 비율과 파괴에 따른 변형과 왜곡이 얼마나 과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체에 한계적으로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두발양식에 의한 조형공간을 확장하고 두발양식을 강조함으로써 복식에서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 역시 기존의 두발양식에서 보여왔던 비율의 파괴 뿐만 아니라 조형에서의 과격미를 보였으며, 본인의 두상보다 몇배에 가까울 만큼 과도한 확장을 이루어 인체의 등분비율을 과감히 파괴하였고 새로운 조형을 창출했다. 이러한 두발양식의 변형은 착용자의 감정표출을 위해 혹은 조형적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통적 제한을 거부하고 형태와 비례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특히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보여주는 변형은 극도의 왜곡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조형성을 정착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로코코시대 포마드와 머리분을 발라 90cm에 달하는 높이를 이루었던 두발양식⁴⁹⁾은 확대현상에 나타난 수직적인 방향성을 갖는 확대로 인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조형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이는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과 마찬가지로 복식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거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복식표현에서의 변형과 왜곡이라는 확대현상을 통해 두발양식의 조형적 만족을 찾으려 했던 것⁵¹⁾으로 보인다.

2) 심미성

심미성 측면에서는 당시대 여성의 과시적 심리구조를 반영하고 시대사조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식에서의 성적측면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

다. 특히 심미성에 의한 미의 표현은 확대형 두발양식의 대표적인 미적특성으로 과시와 관능이라는 여성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대변한다. 여기에는 감성에 의존하는 과시와 장식의 욕구가 조선후기 실학사상, 로코코시대 계몽주의이라는 시대사조에 의해 순화되거나 탄력을 받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8세기 복식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정서에 이윤배반되는 성적부위의 강조는 확대형 두발양식에서도 그대로 전이되어 당시의 시대적 정서에 반하는 심리표현의 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에는 과시의 측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크고 거대한 두발은 부와 신분상의 우월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의 여성들은 확대형 두발을 이루기 위해 앞다투어 체를 더하였다. 도덕적 관습과 신분에 의해 제약되었던 과시의 욕구가 체를 통해 충족되면서 자신이 착용한 체의 양은 곧 축적된 부나 상승된 신분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시 되었다. 또한 확대형 두발양식에 내포된 심미성은 성적측면의 강조로도 잘 나타난다. 조선후기는 여성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었으며, 특히 성도덕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해되면서 성 표현에 있어서 극도의 절제성을 보인다. 이렇듯 여성에게 과도한 절제성은 정숙한 차림새를 요구했던 시대상과는 역설적으로 풍만한 두발양식으로 표현되었으며, 당시 극단적으로 짧아진 저고리와 풍성해진 치마로 강조되었던 성적측면이 확대형 두발양식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로코코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확대형 두발양식은 부의 과시와 신분의 우월을 나타내는 도구로 인식하였다. 확대형 복식이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값이 비싸야 할 뿐만 아니라 착용자가 어떤 종류의 생산노동에도 종사하지 않음을 모든 보논이에게 명백히 제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확대형 두발양식은 어떤 종류의 생산노동과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즉 상류계층임을 나타내는데 기인하였다.⁵²⁾ 이에 확대형 두발양식은 마리 앙드와네뜨와 같은 왕실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어떠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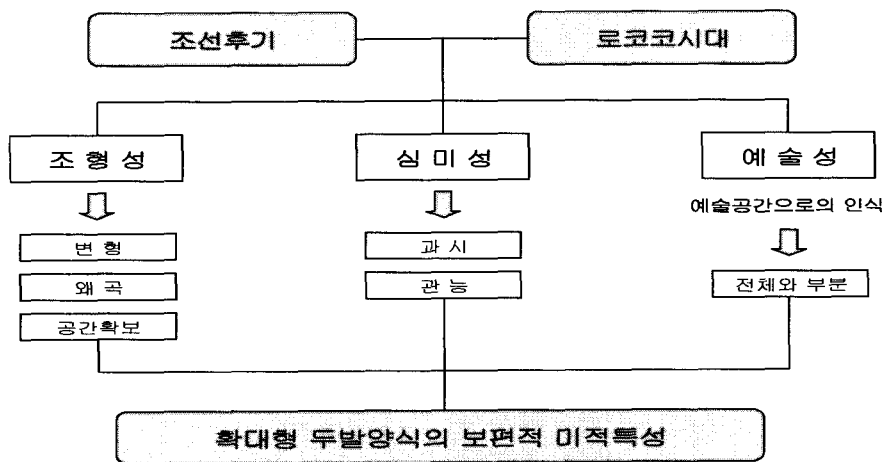
큼 거대한 형태를 이루게 된다. 또한 이러한 두발양식은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확대형 두발양식은 곧 신분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로코코시대 이전까지 여성에게 주로 적용되었던 도덕적 요구가 계몽주의의 의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쾌락적 본성을 추구하는 시대상이 복식에 반영되어 후프나 로브, 페티코트에 의한 확대형 복식은 풍만한 여성의 관능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확대형 두발양식에서도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성과 관련지어지면서 두발을 확대하는 양식이 여성의 성적측면을 강조하는 하나의 복식요소로 적극 활용되었다.

3) 예술성

복식과 더불어 두발양식은 그것들이 일상의 실용성을 목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신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의지에 의하여 실현된 사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복식 뿐만 아니라 두발양식은 기능의 문제임과 동시에 미적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다.⁵³⁾ 즉,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보여지는 예술성은 인체를 재해석하고 창조성을 이끌어서 두발을 인체의 한부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두발양식 그 자체가 예술의 중심이 되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의 관

점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이상적인 인체미의 추구에 대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풍만한 치마형태와 같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확대복식에 대한 미의식의 추구로 발생되어 인체에서도 풍만한 이상향을 갖게 된다. 이에 두발양식은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인체의 일부분으로써 기능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두발양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복식표현 공간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두발양식은 예술적 가치를 갖는 부분으로 윤택하고 탐스러운 체를 더하면서 개성을 찾고, 장식품을 더하여 예술성을 갖게 된다. 특히 궁중에서 착용되었던 대수는 체를 비녀에 말아 올려 생긴 자연스런 선이 예술성의 완성도를 높였고, 거두미에서 보여지는 안정된 대칭의 곡선 활용은 조선후기 두발양식만이 갖는 미적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체를 더해 꼬아 올린 땅은 머리나 큰머리 등은 긴머리를 굽은선으로 꼬아 올리면서 한국적인 선의미를 보인다.⁵⁴⁾ 더불어 한국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비나 화초를 본떠 만든 떨잠과 같은 장신구에 의한 예술성은 당시대인들의 조형의지에 의한 미적표현을 갖는다. 특히 떨잠에서 보이는 울동감은 그대로 하나의 미적특징을 나타내어 복식표현에서 볼 수 있는 선율적인 미, 곡선의미를 연상시키는 미적감성을 갖는다.⁵⁵⁾ 즉,



<그림 1>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의 보편적 미적특성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새로운 양식에 대한 창조성에 치중되지 않고 한국복식이 갖는 선의 미와 한국의 자연이나 다른 요소와의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 과하지 않은 자연미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은 독립된 영역으로써의 창조성을 드러냈던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당시 풍만한 가슴과 큰 엉덩이를 표현하기 위해 확대된 복식과 확대형 두발양식에 의해 인체비율이 6등신의 비만형에 부합되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던 것처럼⁵⁶⁾ 확대된 두발양식에 대한 미적가치는 최고조에 이르고 복식에서의 새로운 양식의 창조는 두발의 확대현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특별한 주제를 표현한 머리형태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정치상의 사건은 물론이고 문학, 철학에서 일어난 사건까지도 머리형태로 다루어지기 위한 소재원이 되었다. 이에 오페라무대의 세트와 같은 전원적인 목가를 표현하거나 또는 꽃이 있는 정원이나 양과 양치기, 개가 있는 들이나 파리의 작은 모험 또는 왕궁의 정원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몽타콜리퍼(Montgolifer)의 풍선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발룬(ballon) 스타일의 머리를 창조해 내는 등 테마가 있는 두발양식이 이루어진다.⁵⁷⁾ 이러한 현상은 두발이 복식의 일부분으로써의 요소가 아닌 두발양식 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술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차별적 미적특성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이 조형성, 심미성, 예술성에서 보편적인 미적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복식과의 관계, 시대사조의 적용, 미적운용방식에서 차별적인 특징들을 보였다.

1) 조형성 - 복식과의 관계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은 조형성이라는 미적특성을 이루는데 있어, 당시대 복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형성에 나타난 변형

은 복식과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나 독립적이나에 따라 변형의 정도와 방법을 달리했다. 변형이 단순히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하는 것, 또는 그 달라진 형태 등으로 설명되어지는 물리적인미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존재 내적인 정서적 질서, 즉 심미적인 측면을 함유하며 새롭고 미묘한 질서를 시각이나 예술성으로 발현하는 것처럼⁵⁸⁾ 시대가 처한 환경과 관점에 적응하여 변형을 이룬다. 이에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신체의 선을 나타내지 않으며 여유있는 형태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였던 한국복식의 연장선상에서 풍토와 신체의 적합성과 그리고 동양적인 정신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조규화⁵⁹⁾는 조형에서 말할 수 있는 소유주 속의 완결성이 아닌 대우주 속에서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 즉,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을 복식과의 상호보완적 변형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조선후기는 전시대에 비해 두발양식에서의 확대가 과도하게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식의 확대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장식에서도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은 복식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성향이 강하다. 복식의 확대현상에 따라 두발양식에서의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두발양식 자체가 또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복식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던 시대적 사건과 이슈가 공상적이면서도 극단적이게 시대를 풍자하는 두발양식으로 나타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크리놀린선으로 된 많은 패드로 주름을 잡고 가발 등을 머리안에 넣었으며, 프레임이나 와이어로 심을 심어서 채워 넣었다. 비례적으로도 복식확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확대를 이루면서 얼굴이 몸 중심에 있게 보일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두발양식이 복식과 견주어 하나의 대등한 감각인상을 산출함으로써 어떠한 형식적 재현없이 바라는 외양을 제시⁶⁰⁾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형성 측면에서 왜곡은 변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 변형과 왜곡의 구분은 모호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해 변형은 형태를 고의로 변형시

켜 새로운 조형물의 창조를 위해 원형을 바꾼 것이 라면, 왜곡은 강조와 과장의 표현으로 자연적 비례 를 무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¹⁾ 이러한 관점 에서도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복식과의 상호 보완적 변형에 따른 두발의 강조와 규모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보이며,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은 복식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변형을 이루면서 다양 한 외적형태를 보였고, 그 양식은 비균제와 파격에 의한 부조화 속에서 왜곡을 끌어냈다. 이는 자연스 럽게 새로운 환경적 공간이 강조되어 인간의 신체 이외의 공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부여⁶²⁾하는 공간확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하면서 조선후기 확 대형 두발양식은 복식의 연장선상에서 공간을 연장 한 것으로 본다면, 로코코시대는 복식과는 다른 개 념의 공간을 창출하고 확연한 분리를 통해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심미성 - 시대사조의 영향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의 심미 성을 살펴는데 있어 과시와 관능이라는 심리표출에 주목하고 미적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 편적인 심미적 성향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과 로코 코시대 계몽주의라는 시대사조를 확대형 두발양식 에 어떻게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표현양식에서의 차 별적 특성을 드러냈다.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얽은머리에 소요되 었던 체의 값이 열집 재산을 넘을 정도로 비싸서 머리를 한번 꾸미는데 7, 8만냥이 소용되었다는 기 록⁶³⁾에서 알 수 있듯이 체를 부의 과시와 신분을 상승시켜 보이게 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보고 이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 기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보여지는 심미적 미적특성 은 절제의 모습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실학사상에 따른 당시대의 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학사 상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실현함에 있어 본성과 욕 구에 관대하면서도 복식에서의 현실성, 편리성, 검 소성이라는 복식관⁶⁴⁾을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과시적 측면을 배제시켰다. 이러한 시대사조의 절충 점에서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풍속화 미인도

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듯 확대된 두발양식이 복식과의 비율을 조율하면서 절제된 미감으로 표현 되고 있다. 즉, 과시의 욕구에서 넘쳐나지 않는 절 제의 미를 보여준다. 반면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 양식은 과시적 미감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여왕 이 착용했던 두발양식의 모방은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표현으로 작용되면서 그 크기와 복잡함이 지나 쳐서 과도한 머리의 높이나 장식의 과용을 불렀고, 당시 여성들의 병폐적인 자기과시의 일면으로 표현 되었다. 이는 바로크시대의 무겁고 장중한 형식에서 벗어나 이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삶의 환락과 긍정 사회의 방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이에 두발양식은 과도하게 확대되었고, 사회적 비판을 감 수해야 할 만큼 거대한 양식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 향은 미지가 상태에서 잠들고 있는 인간에게 편견 이나 미망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계몽주의가 종교와 관습, 제도의 주술에 묶여 있는 인간을 감성적, 심정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신의 주체 성 위에 새로운 세계관, 처세술, 창조에의 참가를 실현하도록 촉구하였던 데에서 더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⁶⁾ 따라서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 발양식은 계몽사상에 탄력을 받으면서 과시욕에 따 른 인체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신체에 대 한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추의 미감을 보였다.⁶⁷⁾

또한 시대사조는 여성의 성적표현을 일컫는 관능 이라는 심미적 미적특성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두발양식에서의 성적표현은 복식에 나타났던 관능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두발양식이 확대되면서 두식에서의 관능성은 크게 부각된다. 즉, 두상이 위엄, 권위, 신분우월의 상징으로만 인식 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에 관능적 요소가 개입되 면서 관능미라는 두발양식에서의 미적특성을 보이 게 된 것이다. 관능미라는 것은 말그대로 성적표현 을 아름답게 발현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부합된다. 특히 조선후기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은유적 관능성⁶⁸⁾은 확대형 두발양식에도 그대로 이입되어 확대된 두발에서 표현되는 관능성이 직접 적이고 노골적이지 않다. 복식과 어우러지는 곡선의

유연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실학사상과 같은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실학의 도덕적 가치관에 따른 절제있는 간접적 표현으로 승화된 은유적 관능미로 볼 수 있다.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은 관능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여성의 두발은 관능성과 관련되고 과장된 두발양식은 여성의 성적 상징 및 매력의 수단으로 보았던 시각에 따라⁶⁹⁾ 이전시대에 결코 보지 못했던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극도의 불균형, 왜곡을 통해 유희와 쾌락으로 분출되면서 관능미의 미적쾌감을 가감없이 나타내었다.⁷⁰⁾ 이렇듯 세속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확대형 두발양식에서의 관능미는 계몽사상에 의한 시대사조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

3) 예술성 - 미적응용 방식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에서 추구하는 예술성은 미적응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조형성에서 보여졌던 복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복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화와 비례를 이끌어 내느냐, 복식과의 독립된 영역에서 미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예술적 성격을 달리하였다. 즉, 미적감각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예술성을 부여하는 객체를 전체나 혹은 부분에 놓고 미를 적용하는 것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동양복식이 인체와 복식을 하나의 총체로 인식함으로써 인체를 독립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비구조적(평면적) 형식을 취해 복식과 착용자, 외부 세계간의 전체적인 기의 순환 및 정신의 전달을 증시하

였고, 서양복식은 인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구조적 형식이 발전하였다⁷¹⁾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은 예술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복식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였다. 복식과의 전체적인 미적조화를 극대화 시키면서 미적응용 방식을 전체로 보는 시각적 확대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복식미에서 보이는 절제의 미, 은유적 관능미, 복식과의 조화, 비례에 의한 선의 미, 과도한 장식이나 파격이 없는 자연미 등은 고스란히 확대형 두발양식에서도 내재되어 발산되었다. 이에 전체를 해할 수 있는 과도한 두발양식의 확대나 복식에서 보여지는 선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소재의 사용과 장식의 적용이 지극히 억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은 두발중심적 미감에 따른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디테일의 섬세함과 소재사용의 파격, 형태의 다양성, 인체와 복식비율의 과감한 파괴 등을 보인다. 즉, 복식과의 관계지향에만 머물지 않고 두발양식 자체에서 예술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응용 방식은 새롭고 획기적인 양식의 창조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창조적 두발양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조선후기 확대형 두발양식에서는 절제되었던 인간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즉,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적당하게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여 지루함을 떨쳐 버림으로써 생활의 균형을 취하고 또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심리적이고 내면적 욕구에 부합된 것이다.⁷²⁾ 또한 인체를 장식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복식발생 동기인

<표 2>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확대형 두발양식의 차별적 미적특성

미적특성		시대	조선후기	로코코시대
조형성	복식과의 관계	변형	상호보완적 변형	독립적 변형
		왜곡	강조와 규모의 조화를 추구	비균제와 파격의 부조화
		공간확보	공간의 연장	공간의 분리
심미성	시대사조 영향	과시	과시의 절제 미감	과시적 추의 미감
		관능	은유적 관능성	세속적 관능성
예술성	미적응용	전체와 부분	복식과의 조화, 비례에 의한 선의미, 자연미	두발중심적 미감에 따른 창조미

복식의 장식성 연구는 두발양식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두발 그 자체를 창조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장식에 대한 충분한 욕구충족을 이루면서 확대형 두발양식에서의 창조미라는 예술성을 심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두발양식에 나타난 확대현상을 복식표현의 한 방법으로 보고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 두발양식의 미적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편적 미적특성으로는 조형성과 심미성, 예술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형성 측면의 복식과의 관계, 심미성 측면의 시대사조의 영향, 예술성 측면의 미적 운용 방식에서 차별적 미적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미적특성으로, 조형성은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복식에서의 비례개념을 해체하고 변화를 강조하면서 발생되었고, 이는 변형과 왜곡, 공간확보라는 조형성을 보여 주었다. 두발양식의 본질을 변형시켰고, 왜곡을 보이면서 이전시대에 있어 왔던 전통적인 두발양식의 비율표현을 높이고 과격했을 뿐만 아니라 조형에서의 과격미를 보여 본인의 두상보다 몇배에 가까울 만큼 과도한 확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확대형 두발양식은 복식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공간개념을 넘어서서 거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확대와 과장이라는 미적특성을 통해 조형적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 심미성은 당시대 여성의 심리구조를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은 과시와 관능의 내적심리가 표현되었다. 확대형 두발양식은 신분과 부를 표현하기 위한 과시적인 역할을 하였고, 로코코시대에는 왕실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착용함으로써 병폐적인 자기과시의 일면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확대형 두발양식은 성적강조의 측면에서 착용하였고, 당시대의 도덕성에 반하는 관능성으로 나타났다. 예술성은 두발을 인체의 한부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두발양식 그 자체가 예술의 중심이 되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국적인 선의 미, 자연미를 보였고, 로코코시대에는 창조성에 바탕을 둔 예술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별적 미적특성으로, 조형성 측면에서는 복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선후기는 복식과의 상호보완적 변형을 이루었으며, 강조와 규모의 조화를 이루면서 왜곡을 보였고, 복식의 연속선상에서 공간을 연장시키는 특징으로 보였다. 반면 로코코시대는 확대형 두발양식이 복식과 독립된 관계에서 변형을 보였고, 비균제와 과격의 부조화를 통한 왜곡현상이 복식과의 공간분리에 따라 두발양식의 공간을 확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심미성 측면에서는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조선후기 실학사상에 의해 과시적 성향이 절제되어 절제의 미감을 발휘하였으며, 여성의 관능성은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은유적 관능성으로 나타났다. 로코코시대에는 계몽주의에 의해 확대형 두발양식이 탄력을 받으며 추의 미감을 보였고, 세속적 관능성이 두드러졌다. 예술성 측면에서는 복식과의 관계에 대한 시각에서 미적운용 방식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선후기는 복식과의 전체적인 조화와 비례속에서 선의 미, 자연미를 보였으며, 로코코시대에는 두발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디테일의 세심한 미감이 창조미를 발산시키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에서 나타난 확대형 두발양식은 확대현상이라는 공통된 외적특성을 바탕으로 조형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보편적이고 차별적인 미적특성을 발현시켰다. 이렇듯 확대형 두발양식에 대한 미학적 접근은 복식의 한 요소로 두발양식이 갖고 있는 복식사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확대형 복식과의 보다 면밀한 관계분석을 통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오현정, 이은영 (1990). 의복에서의 조형미와 유행평가 연구. 복식, 14(4).
- 2) 이순홍, 김정신 (1999). 복식사에 나타난 인체의 과장적 표현에 관한 연구-근세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3(1).
- 3) 진성모 (2003). 현대복식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 4) 성광숙 (2003).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경은 (1996). 복식에 나타난 확대와 과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미진 (1998).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버블스타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미현 (2003).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확대와 과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수진 (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과장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희승 (2002).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2, p. 2627.
 - 10) 김경은. 앞의 책, p. 8.
 - 11) 이은영 (1989). 현대복식에 있어서의 예술성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4.
 - 12)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pp. 155-157.
 - 13) 조규화 (1997).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84.
 - 14) Susanne K. Langer, 이승훈 역 (1982).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p. 39.
 - 15) Marilyn Revell Delong, 금기숙 역 (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즘, pp. 49-50.
 - 16) 이종일 (1987). 18세기 조선사회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23, p. 95.
 - 17) 英祖實錄, 卷90, 33年 12月(甲戌). 而我國則闕中無此制非宮中之好高髻 即國人之好高髻也...昔日命婦之入 闕皆從宮樣 今則混爲一套 至於加髻而極矣.
 - 18) 임린 (2005). 한국 가계양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7.
 - 19) 박홍식 (1995). 조선조 후기 실학사상에 나타난 인간관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15, p. 324.
 - 20) 박홍식. 위의 책, p. 333.
 - 21) 이종일 (1988). 조선초기 사회이동과 실학의 사민평등관의 관련성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24, pp. 48-57.
 - 22) 이태호 (1996).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학고재, pp. 12-31.
 - 23) 김영자. 앞의 책, pp. 229-255.
 - 24) 成宗實錄, 卷130, 12年 6月(甲子). 所謂城中好高髻 四方一尺者比也. 燕山君日記, 卷48, 9年 2月(庚戌). 故曰 城中好高髻 四方高一尺. 孝宗實錄, 卷20, 9年 10月(癸未). 宮中高髻 四方一尺者.
 - 25) 김용서, 안명숙 (1996). 한국복식사. 서울: 교문사, p. 137.
 - 26)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p. 51-52.
 - 27) 仁祖狀烈后嘉禮都監儀軌. 髻髮68丹5介.
 - 28) 正祖實錄, 卷7, 3年 2月(庚辰). 實無可以代髻者 故不敢指的覆啓上曰寔出袪奢崇儉之意然必得其永久可行之制 然後髻髮可禁雖以花冠爲言 而如又以珠玉金具加飾 則其費反過於髻髮...予於登極後 先從宮中痛加禁斷 昔之以髮者 代之以木 此假髻之制 而宮樣不可用於外間 花冠亦品服也 亦不可并用於不賤.
 - 29) 正祖實錄, 卷44, 20年 4月(癸未). 加髻之罷 欲爲袪奢而單髻倍高.
 - 30) 임영자, 구남옥 (1999). 18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 두발양식의 유사성 연구. 복식, 42, p. 213.
 - 31) 閨閣叢書, 권지스, 청낭결, 흑발당윤법, 기름 두 되에, 난만이 닦은 상심 혼 되를 병의 혼가디로 너히 벗 아니 뵈는 첩하의 드랏다가 삼삭만의 브르면, 검기 칠흔 듯하고, 청지마엿께프른넙과 호도 프른 겁질을 혼가지로 달혀 머리 가오면, 길고 검은나라.
 - 32) 靑莊館全書, 卷30, 士小節 第6, 婦儀1, 服飾. 近有富家婦年 方十三 辮髻高重 其舅入室 婦遽起立 髻墜而頸骨折 修能殺人.
 - 33) 英祖實錄, 卷87, 32년 1월(甲申). 士大夫家奢侈日盛 婦人一加髻 輒費累百金 轉相夸效 務尙高大 上禁之.
 - 34) 최경순 (1986). 영·정조대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4.
 - 35) 백영자, 유효순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pp. 289-290.
 - 36)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9, 서울: 두산동아, p.238.
 - 37) 김미선, 부애진 (2000).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경향과 상징성. 제주관광대 논문집, 6, pp. 423-425.
 - 38) 윤점순 (1990). 로코코 예술양식이 18C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11(2), p. 623.
 - 39) 이영환 (1985). 서양미술사. 서울: 박영사, pp. 290-291.
 - 40) 한경숙 (2002). 계몽주의 문학의 여성상(I)-레쌍의 「에밀리아 갈로티」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0, p. 79.
 - 41) 윤점순. 앞의 책, p. 640.
 - 42)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268-269.
 - 43) 유태순 역 (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pp. 228-229.
 - 44) Bradley C. G. (1966). *Western World Costume*. New York: Harrg N. Abrams, Inc., p. 171.
 - 45) 전선정 (2001). 근세 서양 여성의 머리형태와 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9.
 - 46) 김미선, 부애진. 앞의 책, p. 430.
 - 47) 오현정, 이은영. 앞의 책, pp. 246-247.
 - 48) 진성모. 앞의 책, p. 535.
 - 49)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p. 121-122.
 - 50)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 49.
 - 51) 조규화. 앞의 책, p. 122.
 - 52) 조규화. 위의 책, p. 73.
 - 53) 橫川公子, 河原由紀子, 한명숙, 이민경 역 (1988). 복식표현의 위상. 서울: 경춘사, pp. 14-19.
 - 54) 도주연, 권영숙 (2000). 조선복식에 표현된 선의 미에

- 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8(2), p. 228.
- 55)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02.
- 56) 성광숙. 앞의 책, p. 56.
- 57)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앞의 책, pp. 35-36.
- 58) 진성모. 앞의 책, p. 534.
- 59) 조규화. 앞의 책, p. 88.
- 60) 수잔 K. 랭거, 이승환 역 (1982).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p. 85.
- 61) 허정선, 금기숙 (2004).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에 관한 연구. 복식, 54(3), p. 147.
- 62) 최병상 (1990). 조형. 서울: 미술공론사, p. 30.
- 63) 靑莊館全書. 卷30, 士小節 第6, 婦儀1, 服飾. 富貴家 費錢至七八萬.
- 64) 양숙향 (1996). 조선후기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2.
- 65) Max von Boehn, 천미수 역 (2000). 패션의 역사-18세기 로코코시대부터 1914년까지-. 서울: 한길아트, p. 42.
- 66) 성광숙. 앞의 책, p. 51.
- 67) 이순홍, 김정신. 앞의 책, p. 72.
- 68)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5-118.
- 69)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 p. 165.
- 70) 성광숙. 앞의 책, p. 91.
- 71) 이진민, 김민자 (2006).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의 미적특성 고찰. 복식, 56(5), p. 133.
- 72) 성광숙. 앞의 책, p. 90.